인천공항에서 제 남편의 생명을 살린 은인을 알리고 싶습니다

안녕하세요

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으며, 지난 2011년 3월 6일 캐나다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도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화장실에서 쓰러져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을 때, 한 공항직원의 심폐소생술 덕분으로 생명을 건진 캐나다인(Norbet Fekete) 남편의 아내입니다. 남편은 가슴을 움켜쥐고 "Help me"라고 수 차례 외쳤지만 남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듯, 화장실 근처를 지나가는 수 십명의 사람은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,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, 남편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. 그때, 근처를 지나던 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남편의 “도와주세요(Help me)”라는 신음소리를 듣고, 화장실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 남편에게 심장압박을 하였습니다. 의식을 잃었던 제 남편은 5분쯤 지나자 호흡을 재개하였고 남편은 옅은 숨을 토해내면서 맥박과 호흡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. 제 남편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남편이 그 분에게 자신에게 감사를 전화며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자신을 ‘미스터 성’이라고만 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. 생명의 은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, 어디서 근무하는 분인지도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와서 인천공항공사, 언론사 등에 수소문을 해서 그 분의 이름과 근무하는 곳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남편은 이 생명의 은인에게 무엇이든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, 이메일도 보내고 만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하였지만, 이메일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이 후 5년 전에 어렵게 연락이 되어 이메일을 통해 그간의 사연을 전해 들었을 뿐 7년 전 지난 지금까지도 만남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. 남편에게 전해 들어 알게 되었지만, 그 분은 ‘응급처치 전문가도 아닌 자신이 심폐소생술을 했다가 제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나’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지체해도 제 남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분 자신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..

상황이 워낙 급박했던 탓에 공항 내에 있는 제세동기를 사용하거나 119구급대원을 부를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. 대개의 경우, “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결과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하지요. 환자나 그의 가족들에게 평생의 은인이 되거나 평생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.

당시 제 남편은 한국에 사업 차 방문했다가 인천공항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습니다. 주변 사람들이 제 남편이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상황에서 그 분이 제 남편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. 제 남편은 “그 분으로 인해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이 됐다”며 늘 되 내이고 있습니다. 나중에 남편에게 전해들은 얘기지만, 그분은 “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뿌듯함 보다는 자신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”고 말했다고 합니다. 그 분도 심폐소생술 초보자로서 제 남편의 목숨을 구하고 나서도 자신의 져야할 수도 있는 책임이 더 두려웠다고 합니다. 그 분은 자신이 제 남편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후, 혹시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이후에 사망할 경우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죄책감과 유가족들의 원망이 많이 두려웠다고 합니다.

그 분은 “예전에 한 공항 직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하자 그 가족들이 이 직원을 찾아와 ‘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다’며 따져 묻고 이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다”고 말했다고 합니다.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응급의료 관련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일반인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한국의 경우‘선한 사마리아인법’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람이 환자의 목숨을 구하지 못하면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하는 매우 큰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또한 심폐소생술을 통해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찾아가 ‘당신 때문에 내 갈비뼈가 부러졌다’고 따지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응급구조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

그 분은 2010년 4월쯤 인천공항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처음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. 그 분은 공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응급상황 대처법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을 챙겨보면서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했다고 합니다. 수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간이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첫발을 디디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분과 같은 더 많은 직원들이 응급처치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, 다시 한 번 그 분의 선행이 알려져서 생명존중의 사상이 더 확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또한, 그 분이 근무하는 직장(농림축산검역본부)의 홈페이지<https://www.qia.go.kr/listqia6_3335WebAction.do?type=2&clear=0>

를 보니 칭찬코너에 그 분의 칭찬글이 매우 많더군요..제가 일일이 들여다보니 무려 50개가 넘더군요..이런 칭찬글들을 보면서 역시 선행을 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또한, 인천공항의 칭찬 게시판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칭찬의 글을 받았다 들었습니다.

공무원으로서 본인이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며, 한 고귀한 생명을 살린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높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관련 언론기사를 첨부해드립니다.

<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1/04/18/2011041800011.html>

<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2007410>

이해성 드림